

<번역 논문>

평행본문, 얼마나 평행해야 할까?

마르타 웨이드(Martha L. Wade)*

기민석 번역**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 파라텍스트에는 평행본문 도구가 있는데 아주 유용하다. 2019년에 필자는 어느 번역 프로젝트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정 규적인 외부 자문을 받지 못했던 프로젝트였다. 당시 필자는 이 번역팀이 마태복음을 마치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할지 가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정작 열어 보니 마태복음 대 부분이 그 프로젝트에 떠 있었다. 하지만 이 초안 작업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절들과 절 번호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또 번역물은 있었지만, 양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필자는 더 들여다보고자 했다. 평행본문 도구를 클릭해 보니, 마태복음의 모든 평행본문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복사해 온 것이었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만 수정되어 있었다. 필자는 평행본문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던 자문위원이다. 그래서 각 책을 독자적으로 번역한 뒤 책 간의 평행본문을 평행하게 작업 하는 것은, 구절들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평행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고 난 후 나중엔 빈칸만 채우고자 하는 번역가의 마음은 공감하지만, 나의 첫 반응

* 파푸아뉴기니, 파이오니아 성경 번역 위원회(Pioneer Bible Translators) 번역 자문 위원이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명예 번역 자문. mlwade@pioneerbible.org.pg. Martha L. Wade, "How Parallel Should Parallel Passages Be?", *The Bible Translator* 72:1 (2021), 5-18.

** The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minsuckee@kbtus.ac.kr.

은 이랬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한 거지?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이야. 내가 바꿀 순 없어. 그저 자문위원으로서 이러한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평행본문 도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유용할 수 있다. 평행본문 간에 잘못된 번역이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을 때, 자국어 번역에서 보이는 평행이 ‘광역어’¹⁾에서 보이는 평행처럼 되게 하고 싶을 때, 평행 구절 간의 상호 영향 방식을 자국어 번역에도 반영하고 싶을 때, 신약이 구약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문이 어떤 성경책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자국어 번역에 나타내고 싶을 때. 이 가운데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는지는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이 기고는 평행본문 도구가 번역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필자가 겪었던 문제 유형들을 소개할 것이다. 제3단락에서는 이 도구가 파푸아 뉴기니의 아팔어 번역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예를 몇 가지 나눌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돕고 있는 번역 자문단 훈련생들에게 평행본문 도구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요약 제시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1. 장단점

이전 버전의 파라텍스트에 있는 평행본문 도구에 대해서는 스티븐 패트모어(Stephen Pattemore)가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²⁾ 자문위원과 번역 프로젝트를 돕는 거의 모든 이들이 평행본문 도구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도구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많은 자문위원이 잘 모르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평행본문 도구가 파라텍스트의 한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갱신될 경우, 때때로 평행 구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반드시 평행본문 도구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파라텍

1) 역주) 광역어 혹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 소통되는 언어를 뜻함.

2) S. Pattemore,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Acts 17:11): Developments in Paratext and Their Impact on Translation and Revision Checking”, Lénart de Regt, ed., *Of Translations, Revisions, Scripts and Software: Contributions presented to Kees de Blois*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1), 89-90, 97-98.

스트 8에서는 빠졌다(출 21:24; 레 24:20; 신 19:21; 마 5:38). 파라텍스트 7.5에는 마태복음 5:38의 모든 평행 구절이 발견되지만, 파라텍스트 8에는 그렇지 않았다. 파라텍스트 9가 2020년에 출시되었을 때 마침내 이 구절들은 다시 목록으로 돌아왔다.

1.1. 장점

파라텍스트 9 버전에 있는 평행본문 도구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독자가 현 버전에 있는 이 도구의 훌륭한 성능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1. 현 파라텍스트 9 버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절을 점검하여, 평행을 위해 수정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구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 파라텍스트 9 버전은 어떤 구절의 번역에 수정이 가해지면 이를 알려주며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한다.
3. 현 파라텍스트 9 버전은 수정이 필요한 구절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집 창을 제공해 준다.
4. 현 파라텍스트 9 버전은 평행 구절들을 세트로나 개별적으로, 혹은 두 방식을 조합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세트로 승인할 때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용하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파라텍스트 팀은 도구를 계속 개선해 왔고, 번역가들과 소통하며 파라텍스트 사용이 더 쉬워지도록 해 왔다.

1.2. 단점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단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단락에서 다룰 것이다.

1. 이 도구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구절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평행본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평행본문 추가를 제한하기 위해 “피드백”(Give Feedback) 기능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2. 수정이 생길 때마다 번역팀들이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면 쉽게 지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팀원 한 명이 미리 모든 변경사항을 보고, 그 변경사항이 평행적 특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즉 변경사항이 평행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구절에 체크 표시를 다시 해 주는 것이 좋다.

3. 번역팀은 종종 컴퓨터가 가하는 ‘압박’에 그만 굴복하여, 비록 현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그 구절을 수정하여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이는 번역의 자연스러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번역팀이 새로이 작성된 복음서 초안을 자문단이 점검해 준 복음서와 일치시키기 위해 종종 수정을 가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자문단이 점검한 복음서는 번역된 첫 책인 경우가 많고, 모든 자문위원이 알다시피 처음 번역된 복음서의 번역이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다.

4. 번역팀에 원어(그리스어/히브리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경우, 모델이 되는 번역 본문을 두고 그것과 평행하게 만드는 번역으로 함몰될 수 있다. 그 모델 본문이 괜찮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행본문 도구는 쉽게 그 유용성을 잃는다.

평행본문 도구가 파라텍스트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이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히브리어 텍스트에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녹색”(완전히 동일)과 “노란색”(작은 문법적 차이가 있거나 거의 비슷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 보며 작업한다면, 이 도구는 분명히 사용 가치가 있으며 번역팀이 보다 정확한 번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알아 두어야 할 구체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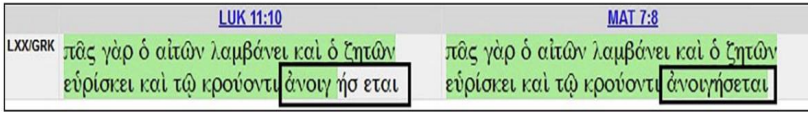
평행본문 도구를 오랜 시간 사용해 본 번역팀은 누가복음 11:23과 마태복음 12:30에서처럼 그리스어가 완벽하게 평행하고 자국어도 완벽하게 평행해서 생기는 “완전한 녹색” 창을 자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다. 필자는 아팔어 팀이 평행본문 도구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보았는데 아래에 소개한다.

2.1. 도구 자체의 문제

2.1.1. 그리스어 표기 오류 문제

매우 드문 경우지만 녹색과 노란색의 하이라이트 표시에, 또는 그리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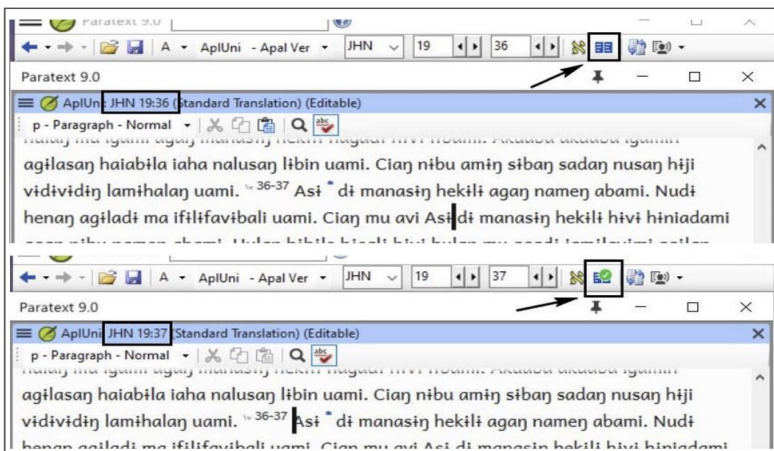
표기에 오류가 발생한다. 작은 예지만, 누가복음 11:10의 경우 그리스어 한 단어 중간에 있는 대괄호가 표기에서 빠져있다(그림 1). 그래서 사용자는 파라텍스트가 완벽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림 1> 그리스어 표기 오류

2.1.2. 평행본문 도구 아이콘에 녹색 체크 표시가 생기지 않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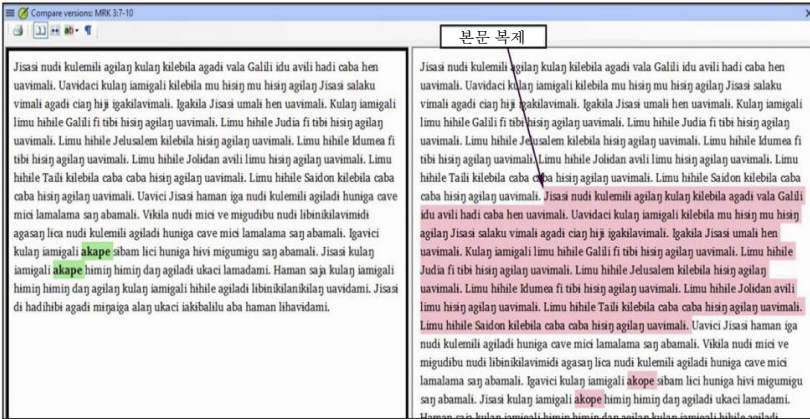
자국어에서 두 절을 결합해서 번역했는데 두 절 중 첫 번째 절이 평행본문이 아니면, 평행본문 도구 아이콘에는 평행이 있음을 나타내는 녹색 체크 표시가 뜨지 않을 수 있다. 파라텍스트 창 위에 있는 장/절 목록에 평행하지 않은 첫 절이 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9장에서 36절과 37절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럴 때 실제로 평행하는 절은 요한복음 19:37이기 때문에 평행본문 도구 아이콘에는 녹색 체크가 표시되지 않는다(그림 2 참조). 평행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수동으로 평행본문 도구를 열거나 아니면 평행본문 도구를 클릭하기 전에 창 위에 있는 검색란에 직접 요한복음 19:37을 기입해야 한다.



<그림 2> 결합 구절의 경우(여기서는 요 19:36-37), 어떤 구절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평행 구절임을 나타내는 녹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

2.1.3. 구절 안 변화를 표시하는 것에 발생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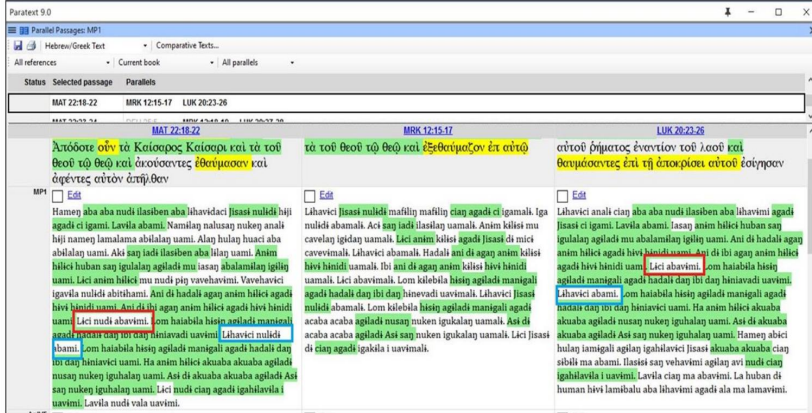
자국어 구절이 결합 구절이고 구절이 평행하다고 마지막으로 표시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 클릭을 할 경우, 프로그램이 혼돈을 겪어 대부분의 구절을 복제하여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상한 창이 뜨기도 한다(그림 3). 차이 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표시된다. 그러나 차이 나는 부분 주변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길이 없다.



<그림 3> 결합 구절의 변화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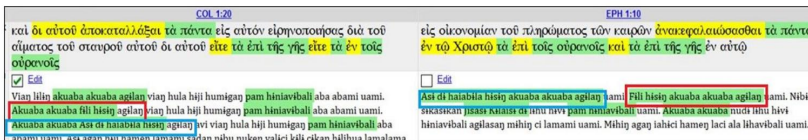
2.1.4.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이 혼동되는 문제

파라텍스트 사용자 중 많은 이가 평행 하이라이트 표시에 대한 도움말 파일의 다음 설명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버전에서 녹색 하이라이트 표시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며, 평행 구절 사이에 있는 동일한 단어나 구문을 최대한 표시해 준다.” 표시기능이 이처럼 기계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이 프로그램이 자국어 본문에 녹색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구나 절의 모든 것이 완전히 같아야만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18-20의 아팔어 번역에서, 두 개의 목적 대명사가 이 두 문장의 유일한 차이점이었기 때문에 목적 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문장이 녹색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두 복음서에서 이 두 문장은 표시되지 않았다(그림 4 흰색 부분 참조).



<그림 4> 마태복음 22:18-20, 자국어 본문의 하이라이트 표기

이와는 반대로, 골로새서 1:20의 아팔어 번역에서, 단어들이 늘어져 있는 몇 개의 긴 문자열을 그 어순이 명백히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동일한 것으로 표시했다(그림 5의 박스 안 텍스트 비교). 톡 피신 (Tok Pisin)³⁾ 텍스트가 모델인 것으로 보이는 이 복잡한 명사 구절은 그 어순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이는 자국 번역가들이 파악하여 수정하려고 노력해 왔던 많은 번역 유형 중 하나다. 그런데 평행본문 도구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식별하지 못했다. 반면, 이 골로새서 구절의 아팔어 번역을 보면, 복잡한 이 두개의 명사구절에서 주격부호(*agilay*)가 명백히 동일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흰색으로 남아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어딘가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필자는 여러 번 보았다.



<그림 5> 골로새서 1:20, 자국어 본문의 하이라이트 표기

2.2. 잘못된 긍정 및 부정 판정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말라리아

3) 역주) 톡 피신(Tok Pisin)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서 영어에 기반을 둔 혼합어이다. 현재 광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아 검사 때 잘못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찬가지로 평행본문 도구가 잘못된 긍정이나 부정 판정을 하여 번역 자문위원의 작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2.2.1. 잘못된 부정 판정

자문위원으로서 필자가 아팔어를 몰랐다면, “명백하게 평행한 이 두 구절을 왜 완전하게 평행한 것으로 번역하지 않는 거지?”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8:9의 명령은 백부장이 직접 말하지만 누가복음 7:7-8에서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을 대신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팔어에서 이 구절들은 마치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팔어의 인용문 구조에서 보자면 사실 정확히 평행한 것이다. 이런 경우 잘못된 부정 판정이 나온다.

2.2.2. 잘못된 긍정 판단

몇몇 잘못된 긍정 판정은 쉽게 설명 가능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한 것들이 있다.

2.2.2.1. 설명하기 어려운 잘못된 긍정 판단

평행 구절인 그리스어 마태복음 6:30과 누가복음 12:28 사이에는 문법적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하지만 아팔어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구절들 마지막에 있는 수사적 질문은 아팔어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모두 녹색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한 단어씩 확인해보니 아쉽게도 누가복음 6:28에는 마태복음 6:30에 없는 한정성 표지(definite marker) 단어 하나가 아팔어 본문에 추가되어 있다. 이 한정성 표지는 지워져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슬쩍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행하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실수의 소지가 생긴다. 실은 완벽하게 평행하지 않으며, 왜 파라텍스트가 이것을 식별하지 못했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이 녹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정확히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잘못된 긍정 판단이라 할 수 있다.

2.2.2.2. 설명 가능한 잘못된 긍정 판단

아팔어에서 “표적”(sign)에 해당하는 용어가 예전에는 짧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짧은 옛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긴 용어로 개정되었다. 누가복음

11:29의 아팔어 번역을 최종적으로 개정할 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2:39와 마태복음 16:4는 완전히 녹색이었다. 이 두 구절은 “표적”을 새롭게 개정된 용어로 번역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구절은 모두 녹색이었다. 만약 긴 새 번역이 한 곳에만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짧은 옛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면, 긴 단어에는 부재한 구(phrase)가 정확하게 식별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적”을 길게 번역한 구의 일부가 하얀색으로 표기되어 그 색상 대비로 인해 쉽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긴 새 구로 번역된 두 구절이 동일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녹색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이 숨겨졌지만, 이는 오류 (“표적”을 번역한 짧은 옛 용어)가 파라텍스트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6의 밑줄 친 문구 참조). 이것은 설명 가능한 잘못된 긍정 판단의 예라고 할 수 있다.

<p>LUK 11:29 GRK Τὸν δὲ ὄμιλον ἐπιθροῦζομένον ἤρξατο λέγειν· Ἡ γενεὴ αὕτη γενεὴ πονηρὰ ἐστὶν σημεῖον ζητεῖ καὶ σημεῖον οὐ δόδοῦται αὐτῇ εἰ μὴ τὸ σημεῖον Ἰουᾶ.</p> <p>✓ Aḥlūni Edit Hulag lamigali venita migudhavidaci Jissai mulēdi abami. Hulag lamigali labi neq hinaviḥali aglaḥ sibiḥi sibaḥ hinaviḥali uami. Lidēq akuba sibiḥi ḡḡa saḡ pam ihaviḥali uami. Agēdi ala akuba sibiḥi ma igaviḥali uami. Jona nibu Asi di ciḡ iglahalaha biḡḡi hulag uami. Nibu akuba akuba lēni agladi pam sulliḡ iglahavila isanḡ namēḡ abavābali uami. Amiq ala aba abavābali uami. Asi mukeḡ nudi abici veni aba abavābali uami.</p> <p>NRSV When the crowds were increasing, he began to say,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as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p>	<p>MAT 12:39 GRK ὁ δὲ ἄ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αὐτοῖς· Γενεὴ πονηρὰ καὶ μοραλῆς σημεῖον ἐπιζητεῖ καὶ σημεῖον οὐ δόδοῦται αὐτῇ εἰ μὴ τὸ σημεῖον Ἰουᾶ καὶ κατοικῶτων αὐτοῦ ἀπὸ θέν.</p> <p>✓ Aḥlūni Edit Lihavici Jissai mulēdi abami. Hulag lamigali labi neq hinaviḥali aglaḥ sibiḥi sibaḥ hinaviḥali uami. Nibilaḡ Asi hula biḡi humiḡaḡ pam ma hinaviḥali uami. Lidēq akuba sibiḥi ḡḡa saḡ pam ihaviḥali uami. Agēdi ala akuba sibiḥi ma igaviḥali uami. Jona nibu Asi di ciḡ iglahalaha biḡḡi hulag uami. Nibu akuba akuba lēni agladi pam sulliḡ iglahavila isanḡ namēḡ abavābali uami. Amiq ala aba abavābali uami. Asi mukeḡ nudi abici veni aba abavābali uami.</p> <p>NRSV But he answered them,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p>	<p>MAT 16:4 GRK Γενεὴ πονηρὰ καὶ μοραλῆς σημεῖον ἐπιζητεῖ καὶ σημεῖον οὐ δόδοῦται αὐτῇ εἰ μὴ τὸ σημεῖον Ἰουᾶ καὶ κατοικῶτων αὐτοῦ ἀπὸ θέν.</p> <p>✓ Aḥlūni Edit Hulag lamigali labi neq hinaviḥali aglaḥ sibiḥi sibaḥ hinaviḥali uami. Nibilaḡ Asi hula biḡi humiḡaḡ pam ma hinaviḥali uami. Lidēq akuba sibiḥi ḡḡa saḡ pam ihaviḥali uami. Agēdi ala akuba sibiḥi ma igaviḥali uami. Jona nibu Asi di ciḡ iglahalaha biḡḡi hulag uami. Nibu akuba akuba lēni agladi pam sulliḡ iglahavila abavābali uami. Amiq ala aba abavābali uami. Asi mukeḡ abici veni aba abavābali uami. Lavila Jissai mulēdi vala umi.</p> <p>NRSV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 Then he left them and went away.</p>	<p>MAR 8:12-13 GRK καὶ ἀνοστεύσας τὸ πνεῦμα αὐτοῦ λέγει· Τί ἡ γενεὴ αὕτη ζητεῖ σημεῖον ὁμῶν· λέγω ὑμῖν εἰ δόδοῦται τῇ γενεῇ ταύτῃ σημεῖον καὶ ὄρα·ς αὐτοῖς· πῶς ἐμῶς ἀπὸ θέν· εἰς τὸ πέρον.</p> <p>✓ Aḥlūni Edit Lihavici Jissai siki hiḥile abaci abalamadami saḡa moḡi biḡi humiḡaḡ biḥi alu sibiḥi havalamaki. Alu sibiḥi havala abamaki. Asi saḡ kulag lamigali nianciḡi nen hinhidavē aglaḥ sibiḥi ḡḡa saḡ pam ihaviḥali uami. Agēdi ala namēḡ amiq abavābali uami. Akuba siki ma sibaḡ igaviḥali uami. Hanan aba ciḡi humiḡaḡ biḥi mudi kulēmi aglaḥ kulag migavāvābali. Migu mulēdi vala uavāvābali. U idu avili hadi caba limu hen ivovāvābali.</p> <p>NRSV And he sighed deeply in his spirit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sign? Truly I tell you, no sign will be given to this generation." And he left them, and getting into the boat again, he went across to the other side.</p>
---	---	--	--

<그림 6> 누락 오류가 하이라이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밑줄 참조).

2.3. 관찰은 도구이지만...

어떤 경우는 도구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번역팀이 도구를 사용하다가 성경 원어보다도 자국어 번역을 더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의도적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본문을 조화시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원어가 평행하더라도 자국어의 언어적 특질 때문에 원어와 같은 수준으로 평행하게 만든다면 자국어의 의미가 부정확해지기도 한다.

2.3.1. 자국어 번역이 실제보다 더 평행한 경우

마태복음 23:4/누가복음 11:4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실제 평행한 것 보다 더 평행한 경우도 있다. 두 구절 사이의 차이는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로의 변화이며, 이 변화는 아팔어 본문 인용구의 마지막 동사에 녹색 하이라이트가 없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그것 말고 작은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인칭의 차이만 제외하고는 그 구절들의 번역이 평행하고 아팔어로 정확히 전달만 된다면, 더 다양한 번역을 시도하여 정확치 못하고 자연스럽게 못하게 전달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각 번역팀이 결정하고 번역 지침서에 기록을 남기면 될 것이다.

2.3.2. 원어에서는 평행이지만 자국어에서는 평행이면 안 되는 경우

2.3.2.1. 지시어 표현(deictics)

마태복음 26:26의 평행 구절들에는(막 14:22; 눅 22:19; 고전 11:24) 그리스어 “이것은 내 몸이니라”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1장 구절에만 어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구는 모든 구절에서 인용구이기 때문에 자국어 번역에서도 당연히 평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분이 이 말을 했을 때 빵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분의 손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미 제자들에게 넘겨주었나요?” 평행 구절들 모두 그리스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팔어도 똑같이 번역하면 지시어 표현이 부정확해진다. 한 시점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빵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면 가까운 거리의 지시적 표현인 ‘이것’이어야 하며(고전 11장),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중간 거리의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이 내 몸”(복음서) 이라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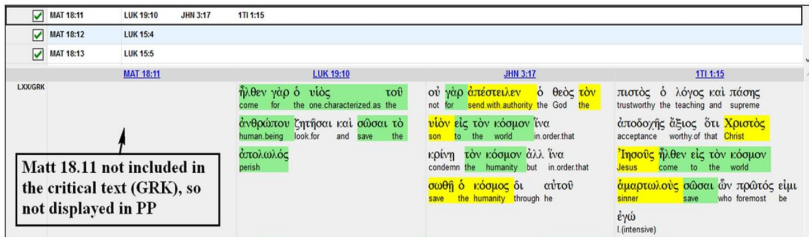
2.3.2.2. 대명사 대 명사

골로새서 1:20과 에베소서 1:10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평행구로 있으며, 다만 순서에만 차이가 있다. 감사하게도 점점 과정에서 아팔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용구 구조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골로새서 1:20 안에 있는 위 평행구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삽입된 인용구의 일부인데, 아팔어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단순히 한정적 표지(definite marker)가 아닌 가까운 거리의 지시어 표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설명 불가능한 이유로 여전히 한정적 표지가 그 구의 무언가 혹은 어딘가와 평행

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타낸다. 아팔어 번역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이 두 중요한 변화가 필요했다.

2.3.3. 평행본문 도구에 추가된 서방 본문의 평행 구절들

아팔어 번역은 광역어(특 피신)를 따르는데, 종종 서방본문⁴⁾을 참조할 경우 각주에 이를 나타낸다. 서방본문에만 있는 평행 구절들은 파라텍스트 8의 평행본문 도구에서는 나열되지 않기 때문에, 서방본문의 구절들은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다. 필자는 서방본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상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방본문을 따르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 비평본문(파라텍스트의 GRK)에 본문이 없는 경우 이 절들의 장절 대부분이 파라텍스트 9의 평행본문 도구에 추가되었다. 이는 마태복음 18:11과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9:10과 더 쉽게 평행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사이에는 단지 주요 용어 하나만 차이가 난다. 이 기능은 서방본문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행본문 도구에서 그리스어가 보통 있는 자리에 서방본문(파라텍스트의 BYZ)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7; 이를 우회하는 방법은 비교 텍스트로 BYZ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서방본문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 비어 있는 그리스어 본문으로 인해 이 새 기능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7> 서방본문(파라텍스트에서 BYZ로 표기)이 목록에는 있지만 그 평행 본문이 나와 있지는 않다.

2.3.4. 한 성경 안의 여러 방언

아팔어 성경 번역 같은 프로젝트는 성서의 몇 책들이 나머지 다른 책들과는 다른 방언으로 적힌다. 번역 자문위원이 전혀 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접하게 되는 프로젝트다.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평범

4) 서방 본문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의 서문을 보라.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A Companion Volume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Greek New Testament (4th revised edition)*, 2n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94).

한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평행본문 도구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평행본문 도구는 말 구조와 어휘 선택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소수 방언 번역이 주요 방언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평행본문 도구를 사용하는 번역팀에게, 다른 방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소수 방언의 권리를 항상 강조해야 했다.

2.3.5. 일관성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복음서들이 각자 다른 저자에 의해 적혔기 때문에 각 책의 양식은 고유해야 하고 그래서 굳이 평행본문 도구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번역팀을 접한 적이 있다. 그들은 일관성을 그리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팀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필자는 여전히 평행본문 도구를 참조한다. 이 도구가 아니면 잡아낼 수 없는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이에 이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보고 나면 그들이 비록 아팔어 번역팀이 사용한 것과 같이 이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평행본문 도구에 대해 더 듣고 보려고 한다. 일관성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번역팀에게는, 일관성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번역 지침서에 기입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해야 번역 자문위원이 이 번역팀과 상담 세션에 임할 때, 일관성이 그들과 나눌 주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담할 수 있다.

3. 파라텍스트를 사용하여 발견하고 수정한 문제들

아팔어 번역팀은 평행본문 도구를 사용하여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번역을 더욱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변경했던 평행 구절의 예 두 가지를 아래에 밝힌다.

3.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범적 출판을 하면서 출애굽기 21:24의 아팔어 번역은 문자 그대로 다 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만약 그가 그의 눈이나 이나 손이나 다리를 나쁘게 하면/할 때, 대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구타한 사람)의 눈이나 이나 손이나 다리를 나쁘게 해야 한다’고 너는 말해야 한다.”

번역팀이 마지막으로 번역한 책은 마태복음이었는데, 많은 부분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출애굽기 21:24와 마태복음 5:38의 번역을 두고 평행본문 도구는 이 두 구절의 번역이 좀 더 평행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출애굽기 구절의 문제는 신체 부위의 정확한 상호적 대응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떤 신체 부위가 다치면 그 대가로 그가 원하는 어느 신체 부위든지 다 해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둘째, 칠십인 역과 신약 그리스어 모두 신체 부위에 가하는 행동에 대한 동사가 없는데, 아팔어는 너무 일반적인 “나쁘게 하다”보다는 신체 부위에 가했을 때 더 적합할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5:38의 그 부분은 역-번역되어 현재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눈을 터뜨린다. 너희들도 그 대가로 그의 눈을 터뜨려야 한다. 그가 이를 바수어버리면, 너희도 그 대가로 그의 이를 바수어야 한다.”

평행본문 도구를 이용하여 마태복음 번역을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고, 이에 출애굽기 구절도 개정하여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졌다.

3.2. 제단과 성전 사이

아팔어 번역팀이 마태복음 23:35-36과 누가복음 11:50-51의 번역을 살펴보면, 스가랴가 죽은 정확한 위치(성전 문)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마태복음 구절 번역에 추가적인 정보가 다소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정보는 참조용으로 좋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추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팔어로 번역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 성전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주목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리스어 구절은 성전을 그냥 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구절의 주요한 영어 번역본들을 훑어보면, 대부분 이 구절을 “필요 이상으로 평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조사해 보니 표현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남겨 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 사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팔어 번역은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언어 집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모호하게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하기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다. 그래서 이 구절들의 개정판은 그리스어 본문에서보다 훨씬 더 평행

하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4. 자문위원 교육생들을 위한 제안 사항

다음은 필자가 멘토링하고 있는 자문위원 교육생을 위해 만든 평행본문 도구에 대한 제안 사항이다.

1. 번역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세 공관 복음서 중 두 책이 개별적으로 번역되어 마칠 때까지 번역자가 평행본문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그들의 번역 기술이 향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만약 번역팀에게 자문위원을 통해 점검된 복음서가 있다면 꼭 그 책을 살펴보라. 하지만 언제 그리고 누가 점검했는지 주의하라. 그리고 출판된 복음서가 잘 수용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보라. 잘 수용되지 않은 문제성 있는 복음서 번역이 또 다른 복음서로 옮겨지는 것은 누구든 원치 않을 것이다.

3.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완전히 같은 (모두 녹색) 평행 구절인데 번역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면, 번역팀은 두 구절의 자국어 번역문을 읽어 보고 어느 구절이 나은지 혹은 각 구절의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결정하라.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나은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한 복음서 안에도 더 좋거나 더 좋지 못한 번역 구절들이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시간이 꽤 걸린다. 하지만 훌륭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

4. 번역 조인가나 자국 번역가가 평행본문 도구 기능을 다룬다고 해서 그들이 도구 사용법을 잘 안다고 가정하지는 마라.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평행 구절 간에 차이를 잘 파악하고, 원본 텍스트를 기반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잘 확인하며, 차이에 대한 근거를 더 큰 맥락 안에서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5. 번역문의 최종 점검이 있기 훨씬 이전에, 번역팀이 평행본문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라.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복음서의 모든 평행 구절을 다루는 데에만 1~2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평행 구절을 올바르게 다루어서 번역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원이 번역팀에 없다면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6. 출판하려는 파라텍스트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방언이 혼합된 드문 형태의 번역이라면, 평행본문 도구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소수 방언의 자연스러운 번역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주제어>(Keywords)

파라텍스트(Paratext)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멘토링, 평행본문 도구.

Paratext Bible translation software, consultant mentoring, Parallel Passages tool.

(투고 일자: 2022년 2월 3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A Companion Volume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Greek New Testament (4th revised edition)*. 2n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94.
- Pattemore, S.,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Acts 17:11): Developments in Paratext and Their Impact on Translation and Revision Checking”, Lénart de Regt, ed., *Of Translations, Revisions, Scripts and Software: Contributions presented to Kees de Blois*,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1, 89-104.

<초록>

평행본문, 얼마나 평행해야 할까?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인 파라텍스트(Paratext)에는 평행본문 도구가 있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다른 유용한 도구들처럼 이 도구도 번역 작업에 있어 장단점을 드러낸다. 특히 번역 자문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다. 이 도구는 자국어 성경 구절들 가운데 평행한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해 주는데, 일치 내지는 불일치에 대해 종종 잘못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번역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어떤 본문의 경우, 자국어가 지닌 문법적 특성이 완벽한 평행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고는 파푸아 뉴기니의 아팔(Apal)어의 예를 들어 이 도구의 장단점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평행본문 도구에 대한 제안사항을 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다.